

여당 텃밭서 4년만에 '리턴매치'... 설욕전 될까 연승 이을까

총선 유세현장 가보니

인천 중구강화군웅진군

지난 21대 총선때 11곳 민주당 뺏혀 야당 텃밭서 보수세 강한 서부 기대 '대통령실발 악재' 수도권 판세 영향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인천광역시에 배정된 선거구는 총 14곳. 선거구 조정이 되면서 한곳이 더 늘어났다.

지난 21대 총선에선 인천광역시의 13곳의 선거구 중 11곳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뺏히며 국민의힘에 완승을 거뒀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대부분 민주당은 현역 의원들이 재도전을 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들은 현역 프리미엄을 극복하고 4년전 패배에 대한 설욕을 노리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대통령실발 악재'에 수도권 판세가 흔들리면서 인천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거대 양당의 존재감 속에,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고 나선 제3지대 후보들의 영향력도 미미하다.

국민의힘이 기대를 걸 곳은 보수세가 강한 인천 서부다. 특히 인천 서해안 도서지역과 제물포역, 동인천역 등 인천의 구도심지를 포함하고 있는 중구강화군웅진군의 표심이 어떻게 될지가 인천 선거에 최대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인천 중구강화군웅진군은 국민의힘에선 현역 의원인 배준영 후보가 출마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선 조택상 후보가



제22대 총선에서 인천광역시 중구강화군웅진군에 출마한 조택상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 두번째)가 지난 4일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운서역 앞 광장에서 유세하고 있다.

출마해 4년만의 리턴매치가 치러진다.

민주당 바람이 불어온 지난 21대 총선에서 배준영 후보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50.28%를 득표하면서 47.64%에 그친 조택상 후보를 이겼다. 조 후보는 영종도 개발로 젊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인천 중구에서 55.29%를 득표하며 42.73%에 그친 배 후보에 앞섰으나, 강화군과 웅진군 유권자들이 배 후보에게 표를 더 많이 몰아주며 신승을 거뒀다.

배준영 후보는 인천에서 태어나 보수 정당에서 당직을 맡았고 지난 20대 총선에서 낙선하고 재도전 끝에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배 후보는 지난 4일 인천 중구 신흥사거리에서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빨간 옷을 입고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시민들을 만났다. 배 후보는 한동안 횡단보도

앞 교통섬에 서서 지나가는 차량과 시민들에게 인사했다.

동요 '악어떼'와 트로트 가수 박군의 노래 '한잔해'를 개사한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유세차 위에선 선거운동원이 지난 4년간 배 후보의 업적을 읊고 있었다.

배 후보 측 관계자는 선거 판세에 대해 "이 지역은 아직까지 여당의 텃밭이자 야당의 힘지라고 본다"면서 "겸손하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 승리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조택상 후보는 충남 출신이지만 학창 시절 인천으로 이주해 소년공으로 일했다. 이후 현대제철에 근무하며 노동운동가의 길을 걸었다.

2010년에는 범야권 단일 후보로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인천 동구청장에 당선됐고 20대 총선에는 정의당 소속으로



제22대 총선에서 인천 중구강화군웅진군에 출마한 배준영 국민의힘 후보(오른쪽)가 지난 4일 인천 중구 신흥사거리에서 시민과 대화하고 있다. /박태홍 기자

출마해 22.62%의 득표율을 얻은 바 있다. 당적을 민주당으로 옮긴 조 후보는 중구강화군웅진군에서 세번째 도전을 하고 있다.

배 후보가 지역구의 구도심 지역에서 유세를 펼친 반면, 조 후보는 신도심인 영종국제도시에서 응원전을 펼쳤다. 조 후보는 지난 4일 오후 영종국제도시 내에 위치해 있는 운서역 앞 광장에서 유세차를 세워놓고 자신의 선거운동원과 퇴근인사를 하고 있었다.

응원곡으로 유명한 유정석의 '질풍가도'를 개사한 노래가 유세차에서 흘러나왔다. 2030 젊은 세대로 이뤄진 응원단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등 뒤로 지나가도 인사를 하며 조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지역의 한 유권자는 본지 기자와 만나 "인천이 서울의 쓰레기 매립지 불

모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 후보나 국민의힘 후보나 유권자 입장에서는 지역을 위해,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일꾼이 당선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중구강화군웅진군 및 인천동구미추홀구에도 인천에서 주목해야 할 격전지 중 한 곳이다. 현역 의원인 윤상현 국민의힘 후보와 지난 총선에 이어 같은 지역구에 재도전하는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재대결이 벌어진다.

당 지도부도 중구강화군웅진군과 인천동구미추홀구들이 격전지임을 인식한 듯,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 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일제히 두 지역구를 방문해 후보를 지원하며 분위기를 북돋았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부천, 교통망·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변화·혁신 이끌겠다”

총선, 이 후보가 궁금하다

서영석 부천갑 후보

의대증원 갈등, 전형적 검사식 사고 지역구 성장 이끌 곳 '대장신도시' '수도권 서부 중심으로 만들 것'

“늘 국민 삶을 위해 헌신하고 차별 없는 세상, 건강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

22대 총선에서 경기부천시갑에 출마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당내 현역 의원 3명이 치른 '데스매치'라고 불린 경선에서 당원과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서 후보는 약사 출신으로 부천시에서 오랫동안 '구생약국'을 운영하면서 시민운동을 했다. 당시 그의 별명은 '비타민 아저씨'였는데, 약국을 운영할 때 폐건전지 수거운동을 하면서 폐건전지를 가져온 아이들에게 비타민을 나눠줬기 때문이다.

부천시의회원과 경기도의원을 거친 그는 21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전문분야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약했다. 22대 국회에선 '비타민 아저씨'에서 '국민비타민'으로 거듭나고 싶다는 서 후보를 만났다.

의료계 현안에 대해 밝은 그에게 연일



제22대 총선에서 경기부천시갑에 출마한 서영석 후보가 유세를 하고 있다. /서영석 캠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의정갈등의 해법에 대해 물었다. 서영석 후보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필요하지만, 이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서 후보는 "의사 중심의 낡은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과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의료 체계도 구축해야 하고, 의대 정원 확대의 방향도 공감하고 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 후보는 "갈등과 대립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다. 오

로지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는 대통령 자신은 '선'이고 이를 반대하는 '악'을 처단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전형적인 검사식 사고"라며 "최근 대통령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그 인식이 다시 한번 분명히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서 후보는 "목적이 옳더라도 해도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결과가 좋다고 해도 그 과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면서 "지금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국민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독단과 독선으로 국정운영을 하

는 행태가 경제와 민생에도 그대로 나타났기에 지금의 정권심판과 민생회복이 선거의 핵심 이슈이자 구도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기 부천시는 선거구가 4개였지만, 이번 총선부터는 선거구가 3개로 줄어들었다. 부천현역의원이었다던 서영석 후보는 부천갑 출마를 선언했고 김복덕 국민의힘 후보와 맞붙는다.

그는 "김복덕 후보는 언론에도 잘 알려진 것처럼 이번 총선에 등록한 후보자 중 재산이 가장 많다. 시민단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후보 1인당 평균 재산이 24억원인데, 김 후보의 재산은 무려 60배이니 기업인으로 성공한 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저도 김 후보와 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였는데, 운명의 장난인지 이번 총선에서 경쟁하게 됐다. 당초 김 후보가 부천시에 예비후보로 등록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오지 않을 줄 알았지만, 이렇게 된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지역구의 성장을 이끌 곳으로 '대장신도시'를 꼽았다. 서 후보는 "부천시갑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대장신도시가 추진 중이다. 대장신도시를 향후 지역구는 물론, 부천의 혁신성장을 이끌 핵심 중 하나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1대 국회 임기 중 대장

첨단산업단지 SK그린테크노캠퍼스 유치 양해각서(MOU) 체결이 있었다. 대장신도시에 공공주택지구와 함께 SK그린테크노캠퍼스를 조성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우수기업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서 후보는 지역의 교통인프라를 강화해 '교통망 혁신'을 이끌겠다고도 했다. 그는 "지난 총선에 출마하며 김대중 정부 때부터 추진해 온 서해선을 개통하겠다는 약속은 이미 지켰고, 또 다른 철도공약인 원종홍대선은 대장홍대선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고 이제 착공하게 될 것"이라며 "아울러 원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오정역 추가 신설도 가시권에 있다. 이외에도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B·D·E·F 노선을 통해 부천을 수도권 서부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종합운동장 매가역세권 개발, 앞서 언급한 대장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부천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공업지역 현대화, 경인선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방음시설 지원, 권역별 거점대공원 조성, 춘의청년창업 허브밸리 조성 등을 통해 부천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끌겠다"고 부연했다.

/박태홍 기자